

# 成人女性の 性格特性과 衣服行動間の 關係研究

—年齡과 職業變因에 의한—

洪 今 姬\* · 李 恩 英

서울대학교 家政大學 衣類學科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occupation variables—

Geum Hee Hong\* · Eun Young R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82.8.12 접수)

###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 rigidity and the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and the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occup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clothing behavior, the subjects scored highest in aesthetics followed by comfort, modesty, management, dependence, interest, attention and approval in a descending order.
2.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ptance and the rigidity characteristics.
3. There was a high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clothing behaviors.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igidity characteristics and in modesty, comfort, management clothing variables according to the age.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acceptance, rigidity characteristics and in management clothing variable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tatus.
6. No significant interactions was found between age and occupation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lothing behaviors.

---

\*曉星女子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Hyo Sung Women's University

## I. 緒 論

同一視(identification)過程을 통한 身體的 自己概念(self-concept)이 形成됨에 있어 衣服은 視覺的 이미지라는 表現手段으로 個人의 性格, 役割, 態度, 雰圍氣 등의 社會心理學的 諸 側面을 반영 전달하는 外貌에서의 변형된 自我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衣服의 研究는 行動領域의 한 側面을 解釋하는데 있어 유용한 洞察力을 提供할 뿐만 아니라 個人과 集團間의 相互力動的인 社會的 役割의 理解에도 기여를 한다<sup>1)</sup>.

이 役割의 원만한 隨行을 위해 自己自身은 勿論 다른 사람과 所屬集團에 受容되어 必要가 있으며, 이 受容性 獲得의 手段으로 同調(conformity)를 배우게 된다<sup>2)</sup>. Good과 Kelley<sup>3)</sup>에 의하면 社會的 受容의 手段으로 衣服을 使用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社會的 受容은 自己受容과 밀접한 關係가 있었다<sup>4)</sup>.

이와 달리 性格特性에서 硬直性을 보인다면 社會的 役割隨行이 어려워져 適應이 힘들 것이며 이는 職業과 같은 組織的인 集團構造 속에서 더욱 뚜렷한 樣相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諸 先行論文<sup>7-9, 11)</sup>에서는 受容性, 硬直性을 주로 靑少年集團에 限定시켜 研究되어 왔으나, 成人集團의 경우는 同僚集團에서의 受容 뿐만 아니라 既存 秩序와 社會體制的 領域에까지 擴大되어 보다 중요한 意味를 가질 것으로 보아진다.

더구나 自己概念은 年齡과 社會環境의 外的 條件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sup>5)</sup>, 本 研究에서는 年齡과 職業有無를 獨立變因으로 設定하여 成人女性集團의 全般的인 性格特性과 衣服行動을 알아 봄은 물론, 變因 間의 相互關係 및 相互作用 등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理論的 背景

### 1. 受容성과 衣服行動

Murray는 人間의 性格을 個人 自身の 충동과 다른 사람의 要求 및 關心 間의 타협이라 提示하고, 다른 사람의 이러한 要求들은 個人이 처한 制度和 文化樣式에 의해 집약적으로 表現되며 그 타협의 過程을 社會化過程이라 했다<sup>6)</sup>. 이 社會化過程에서 個人은 어떤 方式으로든지 그 集團樣式에 따름으로써 個人과 社會的 環境이라는 認定된 樣式 間의 갈등을 해결하여 適應되고 受容되고자 한다. 이런 心理的 要求는 衣服行動의 外形的인 同調와도 相互 密接한 關係에 놓이게 된다.

Cannon,<sup>7)</sup> Williams<sup>8)</sup>, Kelley와 Eicher<sup>9)</sup> 등은 소시

오메트릭方法(Sociometric method)을 써서 靑少年 集團에서의 集團內 受容 정도와 衣服行動과의 相互關係를 調查하였다. 그 結果, 有意的인 關係를 보여 外貌와 社會的 受容 사이에는 높은 相關關係가 있었다. 즉 훌륭한 外貌는 自己確信에 공헌하게 되고 社會的 成熟을 나타내며 인기도도 높았다. 이에 비해 集團內에서 受容받지 못할 경우는 自己概念에 至대한 영향을 미쳤다.

一般的으로 自己受容성이 높을수록 理想的인 自己像(self-image)과 自己概念 사이에 모순이 없어 組織活動에의 參加도가 높았으며, 지배적인 性格이 높은 學生이 自身の 衣服을 높이 評價하고 自身の 身體의 特性에 대한 自信感도 높았다. 그러나 自己受容성이 낮은 사람일 경우는 衣服에 높은 同調를 보였다<sup>10)</sup>.

### 2. 硬直性和 衣服行動

Morrow<sup>11)</sup>는 硬直性 測定問項을 작성하여 衣服行動과 관련시켰는데, 그 結果 硬直성이 높은 學生이 衣服에 대한 극단적인 同調와 個性을 원했으며 自身이 바라는 外貌를 성취하는 것을 重要視했다. 衣服에서의 同調와 個性은 서로 상반된 行動樣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社會的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위협을 느낄 경우, 위협을 경감시키거나 그런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硬直性的 防禦機制(defense mechanism)의 役割을 하게 된다.

硬直성은 年齡과 相關關係를 보여, 年齡이 증가할수록 硬直性도 증가했다. 특히 老年期에서는 不安全感(insecurity), 敏感性, 刺戟過敏性, 完固性, 의기소침 등으로 인한 불안감, 걱정의 心理狀態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硬直성이 적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일 경우는 適應하기도 쉬우며 對人關係도 원만하였다<sup>12)</sup>.

### 3. 年齡과 職業變因에 따른 衣服行動

Katz와 Lazarsfeld<sup>13)</sup>는 流行興味度 調查에서 年齡과 結婚與否가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밝혔다. 즉 未婚女性인 경우 興味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차차 減少하기 시작하여 45歲를 기점으로 급격한 하강을 보였는데, 이 結果는 年齡에 따라 女性의 衣服關心도와 衣服行動이 差異남을 설명하는 것으로 Dushkin<sup>14)</sup>의 生涯週기와도 一致했다.

20代는 다른 年齡層에 비해 衣服에 대한 關心도가 높으나, 45歲이후는 性格特性的 엄격성, 硬直성이 증가하며 社會的 地位意識이 지배하고, 生理的 退行으로 인한 心理的 영향으로 流行보다 外貌를 補完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安樂感을 가장 重視하였다<sup>15)</sup>.

職業女性の衣服行動은 女性自身の 職場에서의 地位<sup>16)</sup>나 수입정도, 教育水準 등에서 有意한 差를 보였다<sup>17)</sup>.

### III. 假說 및 用語定義

#### 1. 假說

假說 I : 受容性, 硬直性的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은 各 下位尺度 사이에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假說 II : 受容性, 硬直性的 性格特性和 衣服行動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假說 III : 受容性, 硬直性的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은 年齡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假說 IV : 受容性, 硬直性的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은 職業有無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假說 V : 年齡과 職業有無는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에 有意한 相互作用을 하지 않을 것이다.

#### 2. 用語定義

##### 1) 性格特性

自己受容性(self-acceptance): 있는 그대로의 自己를 知覺하고 歪曲된 없이 그대로 받아 들이는 狀態<sup>18)</sup>

他者受容性(acceptance of others): 다른 사람의 行動을 自身과 同等하게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狀態<sup>19)</sup>

硬直性(rigidity): 客觀的인 條件이 行動과 態도의 變化를 要求할 때 變化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行動樣式<sup>19)</sup>

##### 2) 衣服行動<sup>20)</sup>

審美性(aesthetics): 美的 感覺이 높으며, 流行과 無關하게 아름다운 外貌를 위해 신경쓰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行動

貞淑性(modesty): 눈에 띄지 않는 衣服을 좋아하며 色相, 디자인, 露出에 있어 保守的인 行動

興味(interest): 衣服에 關心을 가지며 研究하고 여러가지로 연출해 보며 實驗해 보고자 하는 衣服行動

安樂感(comfort): 溫度나 質感에 대한 身體的反應, 몸에 맞는 정도 등이 따른 衣服行動.

注意(attention): 최신 流行이나 독특한 옷에 關心이 많으며, 衣服을 適한 名聲이나 地位를 追求하려는 行動

管理(management): 衣服을 計劃性있게 購買하며 時間, 金銭, 精力을 경제적으로 使用하는 行動

認定(approval): 集團의 規範에 대해 同調함으로써 所屬感이나 他人의 承認을 얻으려는 衣服行動

依存性(dependence): 衣服이 주는 느낌, 기분, 雰

圍氣, 感情變化에 敏感하게 影響받는 行動

### IV. 研究方法

#### 1. 調査對象

既婚 成人女性集團을 Katz 와 Lazarsfeld 의 流行興味度 週期에 따라 세 年齡層, 즉 20~29歲, 30~44歲, 45~60歲로 區分한 후 이를 職業有無에 따라 分類集하였다. 廣圍範한 標集對象으로 인한 豫想誤差를 統制시키기 위해 教育水準을 高卒 以上으로 制限하였고, 職業特性으로 인한 誤差는 職種 別 安配設定한 후(教師 112名, 公務員 23名, 會社員 26名, 醫療業 36名, 기타 26名) 直接 調査對象者를 訪問하여 配分하였다.

資料蒐集은 豫備調査를 거친 후 1981年 8月 20日에서 9月 18日에 實施되었으며 회수된 資料 中 최종 398부를 統計處理에 使用하였다.

#### 2. 測定道具

1) 受容性: Berger<sup>18)</sup>의 問項(自己受容性 22問項, 他者受容性 18問項)

2) 硬直性: Morrow<sup>11)</sup> 問項으로 全體 17問項

3) 衣服行動: Creekmore<sup>20)</sup>의 衣服行動 89問項(審美性, 貞淑性, 興味, 安樂感, 注意, 管理, 認定, 依存性의 8가지 下位尺度로 구성)

#### 3. 資料分析

各 問項에 대하여 平均과 標準編差를 계산하였고, 假說 I, 假說 II를 檢證하기 위해 Pearson 積率相關係數와 Newman-keuls test를 하였으며 假說 III, 假說 IV, 假說 V에서는 變量分析, Newman-keuls test와  $\chi^2$ -test로 檢證하였다.

### V. 研究結果 및 論義

1. 假說 I : 受容性, 硬直性的 性格特性和 各 下位尺度 사이에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 1) 性格特性

〈表 1〉 性格特性 變因間의 相關關係

變 因	他者受容性	受 容 性	硬直性
自己受容性	.350***	.896***	.030
他者受容性		.729***	.056
受 容 性			-.004

\*\*\*p≤.001

〈表 2〉衣服行動 下位尺度사이의 相關關係

變 因	貞淑性	興 味	安 樂	注 意	管 理	認 定	依存性
審 美 性	.080	.392***	.356***	.364***	.515***	.076	.272***
貞 淑 性		-.178***	.299***	-.194***	.004	.175***	-.099*
興 味			.172***	.684***	.461***	.324***	.566***
安 樂 感				.137**	.299***	.107*	.121**
注 意					.440***	.289***	.605***
管 理						.194***	.336***
認 定							.407***

\*p≤.05 \*\*p≤.01 \*\*\*p≤.001

〈表 3〉性格特性和 衣服行動間的 相關關係

變 因	審美性	貞淑性	興 味	安樂感	注 意	管 理	認 定	依存性	總 點
受 容 性	.075	-.115*	-.097*	-.005	-.125***	.143***	-.277***	-.178***	-.129** *
硬 直 性	.221***	.269***	.049	.243***	.046	.283***	.114*	-.025	.237** *

\*p≤.05 \*\*p≤.01 \*\*\*p≤.001

自己受容性和 他者受容성은 p≤.001水準에서 有意한 相關關係를 나타냈으나 受容性和 硬直성은 有意한 關係를 보이지 않았다. 이 結果로 受容性和 硬直성이 本研究에서는 相互關係를 가진다기보다는 性格特性 自體로는 獨立된 概念으로 作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受容性 實點數에서는 Berger<sup>21)</sup>의 結果보다 높았으며 硬直性 역시 姜蕙遠<sup>22)</sup>의 大學生 集團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文化的인 要因과 標集集團의 年齡 差에 의한 것으로 추론된다.

2) 衣服行動

衣服行動의 8가지 下位尺度사이의 相關關係는 〈表 2〉와 같다.

각 下位尺度 變因 間的 可能한 28개의 相關關係 中, 審美性-貞淑性, 審美性-認定, 貞淑性-管理 變因을 除外한 25개의 相關關係에서 p≤.05이상의 높은 有意한 關係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衣服에 있어 美的 關心이 높은 사람이 衣服에 대한 興味도가 높으며, 快適하고 安樂한 옷을 좋아하고 經濟的인 面과 衣服을 통한 感情變化에도 敏感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貞淑性變因(貞淑性-興味, 貞淑性-注意, 貞淑性-依存性)에서는 否的 關係를 보여 衣服行動에서 保守的인 態度를 가지는 사람이 衣服에 대한 興味나 流行 등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下位尺度 間的 順位를 決定하기 위해 Newman-keuls test로 檢證한 結果, 審美性, 安樂感, 貞淑性, 依存性, 興味, 注意, 認定 順位로 높게 나타났으며 注意와

認定은 서로 有意한 差異가 없이 가장 낮았다. 이 順位는 김광경<sup>23)</sup>, 李英繕<sup>24)</sup>의 結果와 같았다.

以上으로 假說 I 은 衣服行動의 下位尺度에서 否定되었다.

2. 假說 II : 受容性, 硬直性의 性格特性和 衣服行動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그 結果, 性格變因들 間的 相關關係에서 有意한 關係를 보이지 않았던 受容性, 硬直성이 衣服行動 總點에서 p≤.001의 뚜렷한 반대 樣相을 보이고 있다(여기서의 總點은 합산된 點數로 下位變因에 관계없이 衣服에 대한 關心도를 意味한다).

1) 受容性

受容性和 衣服行動 間은 否的 相關關係를 보여 受容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衣服行動全般에 걸쳐 關心이 낮았다.

이 結果는 受容성이 높을수록 對人關係에서 갈등 없이 受容하여 衣服을 통한 自己擴張이 必要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곧 社會的 安全感和 關聯시킨 姜蕙遠, Vener 와 Hoffer<sup>25)</sup> 結果와 一致하였다. 李英繕의 研究에서도 自由主義的 態度를 지닌 사람이 衣服에 對한 興味도가 낮으며 衣服을 통한 身分象徵이나 感情變化에 낮은 結果를 보였다.

2) 硬直性

硬直성은 衣服行動과 正的 相關關係를 보여 硬直성이 높은 사람이 衣服에 신경을 쓰고 保守的인 態度를 취하며 衣服의 質感에 敏感하고 衣服을 計劃하여 注意

〈表 4〉硬直性と衣服行動과의關係

硬 直 性	職 業 因 統 制		年 齡 變 因 統 制		
	主婦	職業女性	20~29歲	30~44歲	45~60歲
審美性	.112	.338***	.247**	.212**	.200*
貞淑性	.276***	.247***	.302***	.181**	.197*
興味	-.062	.157**	.203**	.009	.025
安樂感	.179**	.289***	.130	.231***	.246**
注意	-.044	.139*	.249**	-.066	.110
管理	.199*	.338***	.304***	.224**	.299**
認定	.158	.079	.247**	.043	.015
依存性	-.060	.034	.115	-.131*	.103
總點	.137*	.328***	.362***	-.125	.246**

\*p<.05 \*\*p<.01 \*\*\*p<.001

깊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所屬感이나 他者の 承認을 얻기 위해 集團規範에 同調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結果는 Kness<sup>26)</sup>와 李英籍의 研究結果에서 保守的인 態度를 지닌 사람이 衣服에 대한 關心이 높은 것과 一致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硬直성이 높은 사람이 衣服行動全般에 關心이 많기는 하나, 興味, 注意, 依存性 變因과는 有意的인 關係를 보이지 않아 衣服을 自身에 대한 注意를 끄는 手段으로 使用한다기보다는 衣服行動 自體의 硬直된 態度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年齡과 職業變因을 統制할 경우, 더욱 뚜렷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表 3〉에서는 有意한 關係를 보이지 않았던 興味, 注意變因이 職業女性集團과 20~29歲層에서는 正的인 有意한 關係를 보여 硬直성이 높을수록 衣服에 대한 興味와 注意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變因은 流行에 대한 關心을 나타내는 變因이므로 硬直성이 높은 사람이 流行에 關心이 많다는 20代를 對象으로 한 姜蕙遠과 Morrow의 先行研究와 一致했다. 이와는 달리 主婦層과 高年齡層에서는 興味와 注意變因에서 有意한 關係가 없으므로 硬直성이 높을수록 衣服行動 自體의 硬直된 態度로 保守的인 衣服行動을 보였다. 以上에서 남의 注意를 끌고 自身을 顯示하기 위한 防禦機制로서의 硬直성과 高年齡으로 인한 保守的인 硬直성은 衣服行動에서 서로 다른 樣相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假說Ⅱ 역시 부정되었다.

3. 假說Ⅲ: 受容性, 硬直성의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은 年齡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위의 零假說을 檢證하기 위해 下位集團別로 一元 變量分析을 하였다.

1) 性格特性

〈表 5〉年齡變因에 의한 性格特性 差異: 一元變量分析

變 因	D.F.	M.S.	F
受容性	2	170.28	1.224
自己受容性	2	106.32	1.434
他者受容性	2	32.02	1.027
硬直性	2	854.95	17.77**

\*\*\*p<.001

性格特性에서 年齡에 의한 有意한 差異를 보인 變因은 硬直性 變因(p<.001)이었다. 즉 年齡이 증가할수록 硬直성도 증가함을 보여 Madigan의 理論을 지지하였다. 이로써 社會 諸般 問題에 대해 高年齡層일수록 適應力이 낮고 硬直되며 保守적인 態度를 보이며 이는 衣服行動에서 貞淑性, 安樂感, 管理, 認定變因과 正的 關係를 보인 것과 관련된다. 實點數에서는 主婦가 職業女性보다 硬直성이 높게 나타났다.

受容性에서는 年齡에 따른 有意한 差異를 보이지 않아 Berger 結果와 다른 樣相을 보였다.

2) 衣服行動

年齡의 각 段階에서 衣服行動의 順位는 Newman-keuls test 結果 〈表 6〉과 같다.

以上에서 年齡區分에 의한 衣服行動의 順位는 세 年齡層에서 同一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全體成人女性集團과 같은 分布이다.

20代에서는 他 年齡集團에 비해 外貌에 대한 關心과 興味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60歲層은 安樂感和 貞淑성이 두드러지게 높아 평안한 衣服을 좋아하며 保守的인 衣服行動을 보였다. Tate와 Glisson<sup>27)</sup> 역시

〈表 6〉年齡區分에 의한 衣服行動의 差異 : Newman-keuls test

年 齡	衣服行動	審美性	安樂感	貞淑性	管 理	依 存 性	興 味	注 意	認 定
20~29歲		39.96 <sup>a</sup>	36.49	33.92	32.26	31.83	28.41	27.23	26.09
30~44歲		39.90	37.61	35.17 <sup>b</sup>	32.21	30.19	36.95	26.00	25.79
45~60歲		40.93	39.25	37.06	34.09	30.46	26.92	25.59	26.79

a: 평균점수

b: 유의한 差異가 없는 下位尺度의 쌍

〈表 7〉年齡變因에 의한 衣服行動의 有意差 : 一元變量分析

變 因	D.F.	M.S.	F	職 業 變 因 統 制			
				主婦(N=175)		職業女性(N=223)	
				M.S.	F	M.S.	F
審美性	2	38.64	1.316	22.60	0.668	71.39	2.770
貞淑性	2	268.50	7.962***	217.30	6.264***	59.30	1.803
興味	2	93.35	2.286	155.31	3.797*	58.90	1.366
安樂感	2	197.13	8.178***	132.42	5.792**	67.87	2.684
注意	2	88.30	1.926	160.50	3.124*	8.34	0.202
管理	2	117.10	4.235*	24.95	0.809	88.71	3.558*
認定	2	31.31	1.193	45.29	1.705	2.90	0.111
依存性	2	111.24	2.751	76.32	1.550	37.98	1.131
總點	2	1677.41	2.179	301.29	0.356	1663.84	2.318

\*p<.05 \*\*p<.01 \*\*\*p<.001

高齡層에서는 安樂感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했다. 만약 本調査 對象者보다 年齡이 더 높다면 審美性보다 安樂感이 훨씬 높은 可能性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有意差를 檢證하기 위해 一元變量分析을 하였다.

衣服行動 總點에서는 有意한 差가 없으나 貞淑性, 安樂感은 p≤.001水準에서, 管理는 p≤.05 水準에서 有意的인 差를 보여 年齡이 증가함에 따라 身體의 노출을 꺼리고 눈에 띄지 않는 便安한 衣服을 좋아하며 계획성있게 衣服을 管理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年齡이 증가할수록 貞淑性이 높게 나타난 것은 姜蕙遠<sup>20)</sup>의 研究結果와 一致했다.

以上에서 假說Ⅲ은 부분적으로 否定되었다.

4. 假說Ⅳ: 受容性, 硬直性의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은 職業有無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이 零假說을 檢證하기 위해 一元變量分析을 하였다.

〈表 8〉職業變因에 의한 性格特性的 差異 : 一元變量分析

變 因	D.F.	M.S.	F
受容性	1	260.50	1.875
自己受容性	1	299.54	4.061*
他者受容性	1	1.45	0.046
硬直性	1	428.85	8.371**

\*p≤.05 \*\*p≤.01

〈表 9〉職業變因에 의한 衣服行動의 差異 : Newman-keuls test

職變	衣服行動	審美性	安樂感	貞淑性	管 理	依 存 性	興 味	注 意	認 定
主 婦		40.26 <sup>a</sup>	37.84	35.74	33.31	30.23	26.99	26.14	26.12
職 業 女 性		40.07	37.41	34.73	32.14	31.28	27.80	26.48	26.13

a: 평균점수

b: 유의한 差異가 없는 下位變因의 쌍

〈表 10〉職業變因에 의한 衣服行動의 差異：一元變量分析

變 因	D.F.	M.S.	F	年 齡 變 因 統 制					
				20~29歲		30~44歲		45~60歲	
				M.S.	F	M.S.	F	M.S.	F
審 美 性	1	1.24	0.042	17.49	0.617	55.23	1.942	24.97	0.769
貞 淑 性	1	107.84	3.106	0.08	0.002	15.91	0.508	103.20	2.792
興 味	1	68.93	1.611	17.48	0.444	4.60	0.111	256.96	5.392*
安 樂 感	1	17.80	0.712	7.51	0.334	10.78	0.412	4.07	0.177
注 意	1	11.41	0.247	67.58	1.675	7.65	0.152	89.84	1.990
管 理	1	136.08	4.890*	29.96	1.226	100.78	3.419	0.60	0.021
認 定	1	0.23	0.009	6.51	0.268	8.70	0.327	23.87	0.821
依 存 性	1	103.34	2.543	1.22	0.036	47.98	1.148	52.98	1.110
總 點	1	29.44	0.038	51.15	0.067	99.18	0.125	399.58	0.520

\*p < .05

1) 性格特性

下位尺度中, 自己受容性(p ≤ .05)과 硬直性(p ≤ .01) 變因에서 職業有無에 의한 有意인 差異를 보였다. 實點數에서는 主婦集團이 職業女性集團보다 自己受容性, 硬直성이 모두 높았다.

2) 衣服行動

職業有無에 의한 Newman-keuls test 結果는 〈表 9〉와 같다.

一元變量分析한 結果를 보면, 職業者有無에 따른 有意差는 管理變因(p ≤ .05)으로 主婦集團이 職業女性보다 年齡別 有意差없이 衣服管理에 신경쓴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는 主婦集團이 시간적 여유와 實所得者가 아닌 家庭管理者로서의 役割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年齡變因을 통제했을 경우, 45~60歲層의 興味變因에서 職業有無에 의한 뚜렷한 差異를 보여 職業을 갖지 않은 主婦集團이 職業女性에 비해 保守인 경향이 강하며 衣服에 대한 興味나 流行에의 관심에서도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假說Ⅳ는 부분적으로 否定되었다.

5. 假說Ⅴ：年齡과 職業有無는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에 有意한 相互作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零假說을 檢證하기 위해 二元 變量分析을 한 結果, 性格特性에서는 전혀 有意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衣服行動에서는 興味變因에서만 p ≤ .10 水準의 약한 相互作用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受容性, 硬直性의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은 年齡과 職業有無의 相互作用보다는 각각 獨立的으로 영

향을 미칠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興味變因에서 主婦集團은 年齡증가에 따라 衣服에의 興味が 급격히 감소하나, 職業女性集團에서는 年齡증가에 의한 有意差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表 7〉참조), 實點數에서도 年齡과 무관하게 높아 45歲 이후 流行에 대한 興味が 급격히 감소했다는 Katz와 Lazarsfeld의 理論이 해당되지 않았다.

以上에서 假說Ⅴ는 肯定되었다.

Ⅵ. 結論 및 提言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은 有意인 關係가 있어 受容性이 높을 수록 衣服行動全般에 關心이 적었고 硬直성이 높을 수록 높은 關心을 보였다. 이 結果는 硬直성이 높을 수록 流行에 관심이 많다는 先行研究<sup>11,22)</sup>와 달리 衣服行動 自體의 硬直된 態度인데, 이는 硬直성이 年齡과 正的인 關係가 있으므로 標集對象에서 高年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結果는 下位集團 別 뚜렷한 樣相을 나타내 20代와 職業女性集團에서는 硬直성이 높을수록 流行에 대한 關心이 높았다. 이로써 年齡으로 인한 硬直性和 他人의 關心을 끌기 위한 自己誇示의 硬直성은 區分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成人女性集團에서 年齡과 職業有無 變因은 性格特性和 衣服行動에서 相互作用하기 보다는 獨立된 變因으로의 영향이 더 컸다. 단 興味變因에서 相互作用의 경향을 보여 주어 流行興味週期에 年齡과 結婚與否 外에 職業有無도 영향을 미치는 變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衣服行動과 달리 性格特性 自體로는 受容성과 硬直성이 獨立된 概念으로 나타나 二重的 側面을 보였으나 自己領域이 아닌 社會的 領域에서의 受容觀點이나 測定機具를 달리 한다면 다른 結果가 나타날 可能性도 있다고 본다.

後屬研究로써 45歲 以上の 高年齡層만을 標集對象으로 하여 受容성, 硬直性의 性格特性이 衣服行動에 미치는 영향과 高年齡으로 인한 특이한 衣服行動을 확고히 研究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 1) Roarch, M.F. and Eicher, J.B.,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3, (1965).
- 2) Argyle, M., Social Pressure in Public and Private Sit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 172~175, (1957).
- 3) Good, E.H. and Kelley, E.A., Teenage Boys' perceptions of the Role Clothing Plays in the Occupational World,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332~335, (1971).
- 4) Drake, M.F. and Ford, I.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283~291, (1979).
- 5)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959).
- 6)李志永, 李寬鎔, 洪承澈 共譯, 性格의 理論, 서울, 中央適性研究所, 208~209, (1979).
- 7) Cannon, K.L., Staple, R. and Carlson, I., Personal Appearance as a Factor in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44, 710~713, (1953).
- 8) Williams, M.C. and Eicher, J.B., Teen-Ager's Appearance of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457~461, (1966).
- 9) Kelley, E.A. and Eicher, J.B., A Longitudinal Analysis of Popularity, Group Membership and D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246~250, (1970).
- 10) Kelley, E.A., Daigle, C.W., Lefleur, R.S. and Wilson, L.J.,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167~175, (1974)
- 11) Morrow, C.H., Expressive and Coping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Rigidity-Non-rigidit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 D. (1968).
- 12) Madigan, M.E., Psychology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St. Louis: The C.V. Mosby Co., 344~345, (1957).
- 13) Katz, E. and Lazarsfeld, P.,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 The Fress Press, 3rd Ed. 249~252, (1966).
- 14) 金環東, 現代의 社會學, 博英社, 238, (1978).
- 15) Yu, E., The Design of Clothing as a Means of Solving Figure Problems for Women of 40 to 65 Years of age, Master of Arts, University of Washingt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Abstract*, 55, (1975).
- 16) Conner, T.S., Clothing Attitudes and Levels of Job satisfaction for a Group of Employed Middle-Aged Women,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Abstract*, 37, (1977).
- 17) Tate, M.T. and Glisson, O., Family Clothing, New York: John Wily & Sons; Inc., 2nd 10~16, (1963).
- 18) Shaw, M.E. and Wright, J.H., Scales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New York: McGraw-Hill, 432~436, (1967).
- 19) English, H.B. and English, A.C., A comprehensive Dictionary of Psychological of Psychoanalytical Terms, New York: David Mckay Co., Inc., (1958).
- 20) Creekmore, A.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96~101, (1966).
- 21) Berger, E., the Relation between Expressed Acceptance of Self and Expressed Acceptanc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 778~782, (1952).
- 22) 姜蕙遠, 大學生의 個性과 流行을 中心으로 한 衣裳行爲와 性格特性과의 關係, (延世論叢), 11, 349~375, (1974).
- 23) 金光경. 一學年의 女大生의 價値觀과 衣裳關心에 對한 研究, 婦學, (延世大學家政大學), 11, (19



- 78).
- 24) 李英縉, 衣服에 대한 態度와 社會的 態度와의 關係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碩士學位 論文(1981)
- 25) Roach, M.E. and Eicher, J.B., op. cit, 76~81.
- 26) Horn, M.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81, (1975).
- 27) Tate, M.T. and Glisson, O., op. cit, 344~346.
- 28) 姜蕙遠, 韓服에 대한 態度를 中心으로 한 社會心理學的 衣服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4, 1~11, (1979).